

# 나무심기·10분 소등 캠페인... 유통업계, ESG 경영 '활발'

롯데마트, 커피박 친환경 화분 만들기 GS리테일, 에코크리에이터 기부금 롯데호텔앤리조트, 10분 소등 진행 현대백,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 확장

4월 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구의날은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특히 유통기업들이 지속가능한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환경 보호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구의날을 기념해 친환경 봉사활동에 나섰다.

롯데마트 임직원으로 구성된 샷데 봉사단은 지난 1일부터 3주간 각 점포 인근에 위치한 아동복지기관에 방문해 '커피찌꺼기(커피박) 친환경 화분 만들기' 활동 교실에 참여했다.

해당 활동은 커피박을 활용한 화분 제작 및 커피박 쓰임 용도 교육을 진행해 자원 순환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뤄졌다.

롯데마트, 슈퍼 관계자는 "고객들의 생활 속에 친환경 문화가 확산 될 수 있



지난 12일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공원에서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왼쪽에서 6번째)과 유통군HQ 임직원들이 시티 플로깅 단체 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롯데 유통군HQ

도록 상품 개발, 지역 봉사활동 등 다양한 친환경 문화를 지속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GS리테일은 지구의날을 앞두고 '그린 행보'에 나섰다. 지난 18일 에코크리에이터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환경재단에 성금 3억5000만원을 전달한 것. GS리테일이 2019년부터 매년 기탁한 성금 총액은 18억원에 이른다.

이 사업은 GS리테일과 환경재단이 환경을 소재로 한 영상 콘텐츠 창작에 관심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지원·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에코크리에이터 6기 모집 기간은 6월 14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청소년, 일반(성인) 2개 부문이다. 청소년 부문은 5인 이내 10팀을 선발한다. 환경 메시지가 담긴 10분 이내 환경단편영상 순수 창작 시놉시스나 촬영 계획안을 제출하면 된다. 일반 부문은 15팀을 선발하며 환경을 주제로 한 10분 이내 단편 영상 시나리오, 슷품영상 실행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곽창현 GS리테일 대외협력부장은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해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다

양한 관련 활동을 선보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롯데호텔앤리조트도 지구의날을 맞아 환경 관련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에 소등 캠페인 '별과 함께 10미닛(10 Minutes)'을 마련했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1곳에 이르는 국내 전 호텔·리조트에서 동참한다.

소등 캠페인을 진행하는 호텔들에서는 특별한 경품 이벤트도 준비했다. 22일 오후 8시부터 시작될 소등 행사 참여 인증 사진을 찍어 해시태그와 함께 지정된 SNS에 게시를 완료한 호텔 이용객에게 추첨을 통해 롯데호텔앤리조트 계열 국내 5성급 호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권을 증정한다.

롯데호텔앤리조트는 지속가능한 여행의 실천을 강조하며 호텔업계 내에서 ESG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지구의날을 맞아 식품 제조, 베이커리, 외식, 급식 등 전 사업 영역에서 식물성 대안식품을 활용한 저탄소 식생활을 제안하는 '베리위크'(Better Week) 캠페인을 진행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산림청, 사단법인 생명숲과 손잡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대규모 숲 조성사업을 확장하고 나섰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 16일 산림청, 생명숲과 함께 경기도 용인시 국유림에서 '탄소중립의 숲' 조성을 위해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현대백화점·현대홈쇼핑·현대그린푸드·한성·현대리바트·현대퓨처넷·현대디지털·지누스·대원강업 등 현대백화점그룹 9개 계열사의 임직원이 직접 숲 가꾸기 행사에 참여해 모둠 200그룹을 식재했다.

롯데백화점은 전국 최대 규모의 어린이 환경 미술대회 '롯데 어린이 환경 미술대회: 슈퍼 해피 플래닛'을 진행한다. 올해로 42주년을 맞이하는 '롯데 어린이 환경 미술대회'는 다음달 25일 전국 16개 권역에서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

미술대회는 롯데백화점과 환경부, 환경재단이 1979년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한 행사다. 지난해까지 누적 참가자만 14만명에 달할 정도로 롯데백화점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이어가고 있는 대표 행사로 자리잡았다.

오리온은 '글로벌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한다. 한국,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국내외 법인의 임직원 및 가족들이 동참해 각국 실정에 맞는 친환경 활동에 나선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노브랜드 버거, 식물성 패티 선택 "지구환경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신세계푸드의 노브랜드 버거가 지구의날(4월 22일)을 맞아 100% 식물성 패티를 활용한 저탄소 메뉴로 '베리 불고기 버거'를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신세계푸드가 지구의날을 맞아 식품제조, 베이커리, 외식, 급식 등 전 사업영역을 통해 식물성 대안식품을 활용한 저탄소 식생활을 제안하는 '베리위크' 캠페인의 일환으로 출시하는 노브랜드 버거의 '베리 불고기 버거'는 100% 식물성 패티를 사용해 선보이는 저탄소 버거다.

'베리 불고기' 100% 식물성 패티 저탄소 버거 NBB앱 통해 단품 구매시 세트업 혜택도 제공

노브랜드 버거의 대표 가성비 메뉴인 '그릴드 불고기'의 맛과 식감을 신세계푸드가 자체 개발한 식물성 대안육 '베리미트' 패티로 똑같이 구현해 가치소비를 실천하는 젊은 층이 버거를 즐기며 지구환경, 동물복지, 인류건강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도 단품 3200원, 세트 5200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해 부담을 낮췄다.

이와 함께 신세계푸드는 '베리위크' 캠페인이 진행되는 28일까지 NBB앱을 통해 '베리 불고기 버거'와 '베리 시그니처 버거' 단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감자튀김과 브랜드 콜라를 증정하는 세트업 혜택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기후동행카드, 신용·체크 충전... 결제편의 높인다

24일부터 '모바일티머니' 등록 후 충전 내달 31일까지 최대 1만원 추가혜택 제공 27일부터 역사 교통권 발매기서도 지원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에 신용·체크카드, 간편 결제 기능이 추가된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 카드는 이달 24일부터, 실물 카드는 오는 27일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결제 서비스 확대로 전 카드사(신한, KB국민, 현대, 하나, 우리, 롯데, 비씨, 농협, 삼성)에서 발급하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기후동행카드 충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은 24일부터 '모바일티머니' 앱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한 뒤 카드를 충전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서울시

이달 24일부터 내달 31일까지 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하나카드(신용·체크카드 포함)로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경우 최대 1만원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카드사의 이벤트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실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도 개선된다.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은 오는 27일부터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에 비치된 1회용 교통권 발매기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수 있다. 개인별 편의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간편 결제(삼성페이) 방식 중 하나를 택해 카드를 충전하면 된다.

시는 올 9월 말 기후동행카드 기능을 탑재한 신용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카드 한 장으로 신용카드와 기후동행카드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시는 강조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봄철 이동량이 늘어나는 5월에 앞서 신속하게 결제 수단 확대를 추진해 온 만큼, 이용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 전반에서 기후동행카드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ik1@

## KT, AI 활용 통신전력 절감 기술 3가지 선택

AI TEMS 등 서버 전력공급 최적화 솔루션

KT가 지구의날을 기념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절감하는 AI(인공지능) 기술 3가지를 개발했다.

KT가 21일 소개한 전력 절감 기술은 'AI TEMS', '에너지 절감 오케스트레이터', '서버 전력 공급 최적화 솔루션' 등 3가지다.

AI TEMS는 통신 장비들이 관리되는 통신실의 온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기존에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모든 통신실에 동일한 온도 기준을 설정하고, 냉방 시스템을 최대로 가동해야만 했다.

AI TEMS를 도입하면 AI가 장비의 특징과 위치별 온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통신실 적정 온도를 자동으로 설정하고 냉방 시스템을 최적으로 운영해준다. KT는 AI TEMS를 4곳의 통신실에 시범 적용해 냉방 시스템 효율을 24% 개선했으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에너지 절감 오케스트레이터는 기지국의 전파 출력을 AI가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술이다. 기지국의 트래픽을 분석해 최적의 에너지 효율을 낼 수 있는 전파로 무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는다. 4월부터 일부 5G 기지국에 시범적으로 도입됐다.

서버 전력 공급 최적화 솔루션은 서버의 전력을 절감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각종 서버의 중앙 처리 장치(CPU)의 부하를 자동으로 분석해 최적의 전력을 공급한다.

한편 KT는 전력 사용이 많은 통신 장비를 고효율 시스템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다. 에너지 절감형 냉방기와 외기 도입 쿨링 시스템 등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게 KT의 설명이다.

아울러 KT의 부동산 자산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동반한 에너지 자립형 통신국사도 운영 중이다.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KT는 전력 사용 절감을 위한 AI 기술을 네트워크 시스템 운용에 본격적으로 접목하기로 했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 토지소유자 소재확인 공고(2차)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의 2항에 의거 가스배관 시설을 설치하려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련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186-69  
소유주 : 신동민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까지  
공고인 : 협성설비(주)  
연락처 : 조규준 010-9011-9304

2024. 4. 19